
바흐와 헨델: 두 가지 전기*

장 우 형 譯

"Bach und Händel: Zwei Lebensläufe"

Ulrich Siegele

바흐와 헨델의 전기를 비교하는 본 강좌는 총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짧은 머리말에 해당하는 "차이점과 공통점"이라는 첫 부분과 마지막의 "현명한 판단" 사이에는 인생의 3단계에 해당하는 3개의 부분이 있다. 그 첫째는 "자라나는 과정"이고, 둘째는 "직장을 찾아서", 셋째는 "인생의 목표"인데, 이 마지막장은 돈에 관련된 부설이기도 하다.

차이점과 공통점

바흐와 헨델, 헨델과 바흐는 자주 한꺼번에 다루어지는 두 이름이기도 하다. 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이들의 이름을 연결시키는 것은 다만 3가지의 공통점이 있을 뿐이다. 두 사람 모두 1685년에 태어났고, 두 사람이 모두 작곡하고 연주했으며 말년에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눈 수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한꺼번에 부르는 것은 전혀 함께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두 사람이 마치 서로 다른 별나라에서 살았던 것처럼 보인다. 두 사람의 전기를 비교한다는 것은 두 사람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한편으로는 같은 시대에 거의 비슷한 장소와 거의 같은 직업 속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전기를 실현시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다른 쪽에서 보면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인생의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결정을 했어야만 했고, 또 어떤 특별한 인생의 한 단계에서는 무언가를 했어야 했다는 서로 공통되는 인생의 상황이 존재하였고 서로 시대적으로 맞물리고 있다. 이러한 것은 배경을 설

* 본 원고는 2005년 본 연구소에서 주최한 「서울 국제 바흐 페스티벌 2005」의 학술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것임

명해주고 있는데, 두 사람이 실제 살았던 인생의 차이점을 인식하게 해 주고 그 차이점은 서로에게 연관이 있다. 첫 번째 공통된 인생의 단계는 “자라나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두 사람이 모두 18세가 되면서 끝나게 된다.

자라나는 과정

헨델은 1685년 2월 23일에 자알레(Saale)에 있는 할레(Halle)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나고 자라는 때에 할레시는 큰 변화 속에 있었다. 16세기부터 대주교의 공관이었고 후에는 막데부르크(Magdeburg) 대주교의 행정관이었던 기능을 5년 전에 이미 잃어버렸다. 베스트팔렌(Westfalen)평화조약에 의해서 마지막 행정관의 죽음과 동시에 대주교구와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의 선제후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아직은 관리청이 상당기간동안 이 도시에 머무르게 되지만 이미 죽은 아우구스트(August)공작의 아들인 요한 아돌프(Johann Adolf) 1세가 1680년에 공관을 바이센펠스(Weissenfels)로 옮겼는데, 바이센펠스는 아우구스트 공작이 1656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공관의 성격은 후에 두개의 새로운 기관, 즉 공공의 기관과 개인기관으로 바뀌었다. 그 공공기관은 대학인데, 이 대학은 1690년에 만들어져서 1694년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고, 그 후에 현대적인 대학으로 급격히 발전했다. 개인기관으로는 청교도의 지도자인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August Hermann Franke)의 집회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 도시는 공관이 떠난 후에 겪는 어려움을 격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작센지방의 통치에서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의 통치로 넘어가는 과정이 도시와 시민들에게는 많은 적응력을 요구했다. 바로 이러한 변화 속에 있었던 것이 헨델이 나중에 증명해내는 이동성과 유용성을 이끌어 주었을 것이다.

헨델의 아버지는 할레의 근방에 있는 기비헨스타인(Giebichenstein)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외과의사 직업을 갖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브란덴부르크 통치자의 궁중의사와 그 집의 주치의의를 담당하였고, 한편으로는 옛날 작센지방의 통치자와 그의 아들의 궁정의사와 개인 주치의의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이런 위치 때문에 1688년부터 적어도 두 달에 한번씩은 바이센펠스에 있는 요한 아돌프(Johann Adolf) 1세 공작을 방문했어야 했다.

헨델의 아버지는 아들의 직업으로 법학을 택했다. 아마도 그에게 성공적인 궁전에서 캐리어를 가능케 하기위해 정한 것 같다. 하지만 아들은 음악에 재능과 관심을 보였다. 이것은 이 가정에서 상당히 새로운 것이었고, 그래서 비슷한 찬스를 갖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선뜻 적극적인

으로 반대하지 않다. 이런 아버지의 소극적인 태도는 아들로 하여금 음악으로 캐리어를 쌓도록 도와주었고, 이는 궁전에서 법학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일이었다.

작센-바이센펠스의 공작이 헨델의 아버지에게 음악적인 재능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해 주었다. 그리하여 아들은 할레의 마르크트(Markt)교회에 있는 프리드리히 빌헬름 차호우(Friedrich Wilhelm Zachow)라는 오르가니스트에게 배우게 된다. 헨델이 베를린 통치자의 궁전에 간 여행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루어졌는데, 아버지는 1697년에 74세의 나이로 죽었다. 브란덴부르크의 선제후가 헨델에게 이탈리아에 가서 배울 것을 제안했지만 헨델은 그것을 거절했다. 왜냐하면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떤 계약을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헨델은 이러한 관계를 피하고 스스로가 결정해서 발전하는 것을 원했던 것 같다.

그의 17번째 생일이 되기 직전인 1702년 2월에 헨델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얼마 후 돔(Dom: 주교가 있는 성당)의 오르가니스트 자리에 1년 동안 있었다. 1년 후인 1703년 중반 즈음에 그는 오르가니스트로 있을까? 다른 선택의 길이 있는 것일까? 작지만 안전한 길을 갈 것인가? 혹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 넓고 큰일을 할 것인가? 등등 미래 직업에 대해 결정을 해야 했다.

바흐는 헨델이 태어난 26일 후인 1685년 3월 21일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 가족에서 태어났다. 그 가족들은 튀링겐(Thüringen)에서 주로 시 음악가나 오르가니스트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이제나흐(Eisenach)시에서 지휘를 하는 훌륭한 음악가였는데 아이제나흐라는 도시는 아주 작은 공작(Herzog)이 관리하는 도시이고, 이 도시는 작센지방과 튀링겐 지방에서 상당히 특색이 있는 도시였다. 바흐의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7살에는 라틴어를 하는 학교에 들어가야 했고 8년 후에는 중학교를 마치고, 그 후에는 오르가니스트나 시음악가에 필요한 공부를 하고 그 공부가 끝나면 전통적인 직업을 갖고 식구들이 일했던 지방에서 일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전혀 다르게 되었다.

세바스치안은 대단히 우수했다. 7세에 라틴학교에 다녔는데 그는 1학년이 아닌 2학년으로 입학했다. 원래 한 학년을 2년씩 다니게 되어있는 규칙에도 불구하고 3학년을 1년만 다녔다. 바로 이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한해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50세 생일이 되기 몇 주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1년 이틀 후에 돌아가셨다. 이 일로 해서 세바스치안은 오르드루프(Ohrdruf)라는 곳에서 오르가니스트를 하고 있는 큰 형 크리스토프(Johann Christoph Bach)를 따라 이사를 갔다. 전학을 오고 학년을 뛰어넘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세바스치안은 4학년을 최우수학생으로 마쳤다. 그래서 8년 과정을 5년 만에 끝냈으며 5학년과 6학년 과정은 합해서 일년 만에 마쳤다.

이 시점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 세바스치안이 15세가 되는 해에 형의 양육 의무가 끝났다. 그래서 그는 보통 수공업자 아들이 하는 것처럼 도제의 길에 들어서야 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그가 이미 너무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보통 사람은 15세에 3학년 중간에 있는데 그는 이미 6학년의 중간에 도달해 있었다. 뤼네부르크에 있는 동안에 첼레(Celle)라는 도시에 있는 프랑스 전통 악단을 볼 수 있었고, 여러 번 함부르크(Hamburg)를 방문했다. 함부르크를 방문한 것이 오르간 때문인지 오페라 때문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바흐는 수능시험을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을 끝내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 뤼네부르크를 떠난 후에 그는 쾰히하우젠에 있는 아콤폴교회의 오르가니스트로 뽑혔다. 하지만 작센-바이센펠스의 공작이 궁전 악단의 단원이 되도록 했다. 그래서 바흐는 1703년 초반에 작센-바이마르(Sachsen-Weimar)의 공작이 함께 통치하는 궁전의 악단에서 일을 하였다. 그것은 좀더 좋은 기회를 얻고자 하는 시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바흐의 천재적인 재능으로 봐서 그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지만 사실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했다. 보통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그의 대단한 천재적인 능력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음악에서 배우고자하는 것을 혼자서 얻어내야만 했다. 그의 재능에는 대단한 열심과 정돈, 시민계급이 추구하는 검소함 등이 있다. 그가 받은 음악 교육은 어떠한 경우에도 충분하지 못했다. 그가 어떻게 틀에 박힌 교육 속에서 스스로를 발전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이러한 능력은 그로 하여금 전혀 전형적이거나 전통적인 직업 음악가가 되도록 만들지 않고 오히려 음악가로서 가장 높은 능력과 개성을 추구하도록 하였다. 바로 이를 통해서 바흐는 스스로 깨달아 가고 있었으며 또한 새로운 기회와 삶의 문제도 생겼다. 그리고 그것이 특별하고도 인상적인 인생의 경로를 보여주게 된다.

바흐가 자란 도시는 헨델이 자란 할레라는 도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도록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변화도 없는 작은 도시였다(오르드루프는 제외). 그렇지만 뤼네부르크에서의 시간은 당시 제국의 비인 다음으로 큰 도시인 함부르크를 찾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었고, 그것은 바흐의 인맥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 헨델이 바이센펠스 궁전에서 오페라를 알고 있었고 해당 공관인 베를린에서 그의 능력을 시험받을 수 있었지만 바흐는 이 시간에 더 많은 문화적, 음악적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바흐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환경에서 자랐다. 그가 음악가가 되기 위해

서 아버지의 후원이나 공작의 조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세바스치안은 집에서 음악을 좋아하는 처음이고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다. 음악은 모두가 하는 일이었고 아버지 밑에서 배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였다. 그의 주변에서는 음악을 하는 사람보다 하지 않는 사람이 별종으로 보였다. 시음악가는 하나의 파를 이루고 있진 않았지만 파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음악은 일종의 수공업이었는데, 수공업이란 될 수 있는 한 잘 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아이제나흐에서 도시의 음악가들이 악기 연주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중에 특히 비올라가 그랬다. 비올라는 아들과 아버지가 모두 좋아하는 악기였다. 오르드루프에서 중요한 것은 오르간이었고 뤼네부르크에서 중요한 것은 노래하는 것이었다. 음악을 다룬다는 당연성은 바흐에게 하나의 기초가 되었다. 이것은 바흐에게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하며 음악에 대한 전체적인 일을 완벽하게 하도록 만들어주었다. 그는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은 실제로 그가 갖고 있던 것이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하여 완벽해졌다. 가문의 전통이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음악적인 인생의 기반을 닦아주었다. 또한 그것은 그로 하여금 그것보다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문의 전통은 특별한 직업을 택하고 뛰든지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에게는 시를 위해 일하는 음악가가 되거나 오르가니스트가 되는 두 가지 외에 다른 길은 없었다.

한편 헨델은 가문의 전통과는 상관없이 정해진 교육을 받았다. 그는 도시에 속한 음악가의 아들로써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흐가 받은 교육과 비슷한 교육을 받았다. 노래하는 것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헨델은 바흐에 비해 좀더 활기찬 도시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좀더 높은 수준에서 인생을 시작했다. 이것은 아이제나흐에서 바흐-가문의 집과 루터가(Lutherstrasse) 35번가에 있는 헨델의 집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외과의사라는 것은 수공업자와 같은 정도의 일이었다. 또한 그의 아버지는 아우구스트 공작과 요한 아돌프 1세의 주치의로서 바흐의 집보다 사회적으로 좀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식구들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힘든 지경에 빠지거나 아들이 스스로의 의식주를 걱정해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는 대학에 입학했지만 한해만 다녔고 얼마만큼 무엇을 배웠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는 가문의 전통에 묶여있지 않았고, 이 신입생에게는 음악적인 직업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었다.

직장을 찾아서

18세가 된 이 두 사람은 모두 미정의 자리에 있었다. 헨델은 건습 오르가니스트였고 바흐는 궁전의 하인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자라나는 과정을 끝냈고 직장의 삶을 시작하기 전이다. 이 두 사람은 아주 특별한 그들의 특성 때문에 직업을 자주 바꾸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떤 자리가 자신에게 좋을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헨델은 가문의 전통에 묶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반면에, 바흐는 가문의 전통에서 끊어져야만 했고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시간이 좀 더 지난 후에 그릴 수 있었다. 이렇게 개인적인 직업의 모습이 어떻게 결정되어지고 어떤 인생의 길을 갈 것인지가 헨델에게 있어서는 10년 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바흐에게는 20년이나 걸렸다.

헨델이 할레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을 때 어떤 전공을 하려고 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어쩌면 대학에 속한 재판관에 들기 위해 입학을 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아들이 법을 공부했으면 하는 아버지의 소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독일 초기 계몽주의의 선구자, 독일 제국의 제국법의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 크리스치안 토마시우스(Christian Thomasius)의 영향이 있었다. 법률과 연관이 있다고 하면 헨델이 오페라에 끌린 사실은 더욱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법을 하다가 음악으로 돌아서는 사람의 대다수가 대부분 오페라를 했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Georg Philipp Telemann)이다. 음악적인 장르와 학문적인 내용과의 연계성이 서로 능동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오페라는 유럽의 음악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르였다. 누구든지 지엽적이고 하나의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럽전체에서의 영향과 명성을 원한다면 오페라를 해야만 했었다.

베를린에서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은 헨델이 너무 이르게 어떠한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리 관계를 맺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할 것 같아서 거절한 것이다. 궁전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제외시켰다. 결국은 한제(Hanse)동맹시였던 함부르크와 그의 오페라가 주된 목표가 되었다. 1703년 초여름에 그는 마테존에 이끌려서 대사였던 존 위치(John Wich)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처음으로 영국식 삶에 접촉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함부르크가 끝은 아니었다. 함부르크는 오페라 캐리어의 시작에 불과했다. 2년 반 후에 헨델은 진정한 음악과 오페라의 땅인 이탈리아로 향했다. 이미 함부르크에서 그는 예술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을 함께 성공시킬 줄 아는 재주를 보였

다. 그는 그 당시에 200두카텐(Dukaten)을 가지고 떠났는데 200두카텐은 오늘날의 40000유로정도 되는 액수이다. 이탈리아에서 그는 약 4년간 있으면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웠고 피렌체, 로마 나폴리, 베네치아에서 유명해졌다. 그가 1709년과 1710년에 자신의 오페라인 「아그리피나」(Agrippina)를 가지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한 후에 북쪽으로 돌아왔다.

후반기에 그는 하노버(Hannover) 후작의 궁정악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렇지만 가을이 되자 그는 여행을 떠났는데 먼저 할레에 계신 어머니를 만나고 뒤셀도르프(Düsseldorf)에 있는 팔츠 궁정에 잠시 머무른 후에 11월말이나 12월 초에 런던에 들어섰다. 일이 많았던 1711년 6월까지 그는 돌아오는 길에 뒤셀도르프에서 잠시 머물렀고 11월에는 요한나 프리드리카 미카엘슨(Johanna Friderica Michaelsen)의 조카이고 그의 전체 상속인이 된 누이의 딸의 후견인이 되었다. 그는 이미 결정을 했다. 돌아오는 길에 런던에서 영어로 된 글을 부탁해 가져오면서 그는 자신이 언어 외우는데 진보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 다음 해인 1712년 10월에 그는 다시 런던으로 갔다. 주어진 휴가기간을 초과해서 1713년 하노버에서 해고되었다. 1714년에 영국의 여왕이 그가 하노버에서 악장으로 받았던 봉급에 상응하는 월급을 주었다. 그리하여 런던이 그의 거주지가 되었고 자기가 활동할 장소를 발견한 것이다.

바흐 역시 이러한 동요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단지 그리 공간적이지만 않았을 뿐이었다. 그의 근본적인 직업상의 문제는 1703 후반기에 전혀 예기치 못한 해결점이 나타날 때까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의 형은 그를 원래의 직책인 오르가니스트로 키웠다. 바흐는 이 직책을 아른슈타트, 뮐하우젠, 결국에는 바이마르에 이르기까지 수행하였다. 아른슈타트 시절에 그는 뤼베크에 있던 북스테후데에게 3개월간의 훈련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갔다. 2년 전에 마테존과 헨델도 북스테후데의 자리를 염두에 둔 적이 있었지만, 그 자리와 연계되어 있던 결혼문제로 인해 포기하였다.

뮐하우젠에서 바흐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 즉 자신의 악기뿐 아니라 앙상블을 위해서 작곡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교회칸타타를 작곡하였다. 얼마 후에는 바이마르로부터 이런 식의 작품을 정기적으로 위촉 받게 되었다. 그 때가 1714년 초, 헨델이 막 런던에 자리를 잡았을 때이다. 하지만 바흐는 자리를 잡을 때까지 2배의 시간이 필요했다. 새로운 직책은 악장의 자리와 연계되어 있었다. 이렇게 바흐는 지휘자와 부지휘자 다음의 3번째 중요한 위치로 승격된 것이다. 하지만 지휘자가 죽고 나서 부지휘자를 제치고 스스로 지휘자가 되는 것에는 성공하지 못한다.

바흐가 오르가니스트로서의 직책에서 벗어나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

었다는 사실은 다음으로 바흐가 간 길을 보면 확연히 들어난다. 쾨텐에서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2년간 그는 궁정지휘자가 해야 할 레파토리를 연주하였다. 아마도 그는 이 시기에 건반음악에 너무 소홀하였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는 근무 외로 건반음악에 다시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의 상관은 지휘자가 일의 상당부분을 신경 쓰지 않는 것에 대해 그리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는 직업상의 현저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어떤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인가? 오르간 연주자로서 자신의 고유하고 상당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사회에서 인정받는 길을 택할 것인가, 오르가니스트? 아니면 지휘자?

바흐는 자주 직장을 바꾸었다. 거기에 바꾸려고 시도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바이마르에서 할레로, 그리고 쾨텐에서 함부르크로 지원했던 기록이 남아있다. 또 몇 번의 여행이 직장을 구하거나 최소한 직장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 사이에서 그가 겪은 근본적 딜레마라는 입장에서 보면 바흐의 직장구하기는 자신에게 걸맞은 인생을 찾기 위한 실험적인 탐색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1723년 전반기에 라이프찌히에서의 실험으로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고하여 보아도 그렇고, 먼저 바흐 자신에게도 기대하지 않았던 해결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회음악가를 목표로 삼지 않았었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바흐는 토마스 학교의 칸토르에 훌륭한 적임자였다(그의 오르가니스트로서의 능력이 그 곳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지만 중등과정의 학문적인 수업에 관한한, 대학교육과 수업경력이 전제 되어 있기에, 그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까지 단 한번, 일년간 시를 위해 일하였고 나머지는 궁정을 위한 일을 즐겨한 편이었다. 그가 정말 시를 위해 일하려고 했을까? 그가 정말 지휘자라는 사회적으로 지도자급의 자리에서 그보다 낮은 칸토르의 자리로 옮기기를 원하였을까?

해결책은 다음과 같았다. 바흐는 자기에게 자격이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신경 쓸 것이 없었다. 대신 그는 수업에서 자신의 일을 대신하는 동료에게 돈을 지불하여야 했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자신의 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이로써 자신의 자유공간을 사들인 것이다. 이 자유공간에서 그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는 이를 이용하여 오르가니스트로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훌륭한 연주자로서 또한 오르간 악기전문가로서 여행을 하고, 작곡을 하고 건반음악을 출판하며 클라비어 교습을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는 합쳐질 수 없는 것을 일원화시켰다. 직업적으로 그는 시의 지도자격인 음악감독이면서, 개인적으로는

건반악기의 능력 있는 대가였던 것이다. 그는 지휘자라는 직업을 오르가니스트라는 취미에 접목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은 희생이 따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이것이 바흐에게 하나의 짐처럼 여겨졌으나 결국에는 그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해결책은 라이프찌히로서도 특이한 것이었고 당시의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작센지방의 선제후와 폴란드의 왕인 아우구스트(힘센 아우구스트라는 별명으로 불림)가 자신의 절대군주적인 위치를 이를 제한하려는 권력층에 대해 어느 정도 공고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관계로 라이프찌히에는 두 가지 세력이 있었다. 하나는 의회와 시의 전통적인 권리를 대변하는 당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절대 권력자와 그 궁정의 흥미를 대변하는 당이었다.

절대군주의 궁정당과 그의 대변인, 시장 고트프리트 랑에(Gottfried Lange)는 바흐의 선택과 그의 근무방법을 관찰시켰다. 왜냐하면 그들은 궁중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명성과 궁중경력을 고루 갖춘 실력 있는 음악가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바흐가 라이프찌히에서 자신의 음악적인 명성에 걸맞은 영향력을 갖추었던 것은 이러한 단발적인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때문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라이프찌히는 그의 특별한 능력과 구체적인 당시 그곳에서의 전제조건 안에서 그에게 적당한 직업상의 타협점이 되었던 것이다. 정치적인 것과 개인적인 관심으로 일치한 것이다.

그 해결책에 대한 대가는 의회와 시의 정당이 계속하여 반발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교사의 전통을 고수하기 바랐고 지휘자의 예외적인 행동은 간과하기 싫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떤 직업도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 항상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원하고 그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직장생활에서의 불화는 평범한 것이다. 이것은 바흐와 마찬가지로 헨델에게도 해당된다. 하지만 헨델은 자신의 직업에 관하여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있었다.

인생의 목표 - 돈에 관한 부설

헨델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음악적인 독점권을 얻는 것에 두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독일이건 이탈리아건 존재하지 않았다. 1648년에 맺어진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에 의해 독일의 헌법과 정치적인 구조는 많은 서로 다른 정치적인 단위를 보장하고 있었고, 특히 문화적인, 또한 음악적인 다양성에 대한 것은 독일 연방주의 속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값비싼 자산에 속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도시화, 중심을 만들어내는 일, 정치적으로 또한 문화적인 권력의

중심지에는 방해가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독점권을 형성할 어떠한 기초도 없는 상태였다. 이탈리아에는 하나의 도시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한사람이 5개의 도시, 즉 로마, 나폴리, 피렌체, 밀라노, 베네치아에서 동시에 권력을 휘두를 수는 없었다. 프랑스는 왕권의 중앙집중주의에 반해서 일을 하기는 불가능하였다. 결국 영국만 남게 되었다. 틀림없는 분석 하에 헨델은 런던으로 향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민족이 모여 있는 세계제국의 중심으로, 궁정이 문화의 중심세력이 아니라 높고 낮은 귀족들과 상류의 시민계급들이 관심을 갖고 재정적인 원천이 되어서 대규모의 문화적인 생활을 이끄는 곳으로. 음악은 사회생활의 사건이며 이벤트였고, 바로 그런 이유로 유지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오페라가 런던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렇게 헨델은 자신의 인상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였다.

헨델은 이민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영역에 적응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이것은 5~6년이 걸렸고, 이 사실은 헨델이 바흐에 비해 빠른 런던으로의 결정이 가져올듯한 직업상의 선재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시점에서 안나 여왕은 죽고, 헨델의 옛 상사였던 하노버의 선제후 게오르크 루드비히(Georg Ludwig)가 영국의 왕 게오르크 1세로 즉위했다. 1716년 여름과 가을에 왕이 없는 틈을 타 헨델은 할레와 안스바흐로 여행했다.

헨델의 영국에서의 생활은, 그의 적응단계를 제외하고는, 3시기로 나뉘어진다. 그가 직업상의 이유로 가졌던 3번의 큰 여행이 이들을 나누고 있다. 1719년 그는 뒤셀도르프를 거쳐 할레와 드레스덴으로 5월에서 12월까지 여행한다. 1729년 그는 2월 초에 런던을 떠나 먼저 이탈리아에 갔다가 중도에 아마도 함부르크를 거쳐 하노버와 할레를 들른 후 6월에 돌아온다. 1741/42년 11월에서 이듬해 8월까지 그는 더블린에 거한다. 이 두 번째 시기였던 1737년 그는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다. 4월 중순에 헨델은 뇌졸중에 걸린다. 오른팔의 마비증상을 9월과 10월 사이에 아헨의 휴양지에서 치료한다. 세 번째 시기인 1751년 2월부터 점점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그의 일에 영향을 미친다. 1750년(바흐가 죽은 바로 그해) 6월 1일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서 8월과 12월 사이에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독일로 향한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와 할렘사이에서 사고로 인해 크게 다친다.

1719년 헨델은 독점권을 얻어낼 좋은 기회를 맞게 된다. 왕립음악원(Royal Academy of Music)이 오페라 공연을 위하여 세워지고 그는 스스로 악단을 조직하기 위해 대륙에 보내진다. 이번에 헨델은 이탈리아로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탈리아의 훌륭한 남녀 성악가들이 독일 드레스덴에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작센지방의 선제후와 폴란드의 왕인 아우구스트(힘센 아우구스트라는 별명

으로 불림)가 죽은 황제 오제프 1세의 딸인 오스트리아 대공 마리아 요제파와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1717년부터 이런 규모의 오페라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새로 탄생한 부부가 드레스덴에 입주함에 따라 1719년 9월에 화려한 축제가 열렸는데, 이것은 국제적인 음악박람회를 방불케 하였다. 텔레만도 그곳에 있었지만 바흐는 -그와 대조적으로- 없었다. 우화적인 프로그램이 힘센 아우구스트의 미학적인 공연의 절정이었고 작센지방의 선제후 집안의 유럽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었다. 힘센 아우구스트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을 축제 기간을 넘어서까지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끝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커다란 오페라 소동이 있고 나서야 해체가 이루어졌다.

헨델이 조직한 악단은 런던에서 보충되었다. 1720년 4월 초에 첫 번째 시즌이 열렸다. 새로운 공연기간 동안 헨델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다. 공연의 반은 그의 오페라로 채워졌다. 하지만 그는 바라던 독점권을 얻어내지 못했다. 왕립음악원은 대중적인 즐거움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헨델이라 할지라도 독점권 내에서의 대중적인 즐거움을 허용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경쟁자가 필요했다. 그래서 헨델은 우선 다른 작곡가와 겨루어서 이겨야만 했고 또 이겼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다. 두 명의 명성 있는 프리마돈나를 무대에 세우는 이 아이디어는 결국 청중을 양분화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황태자 앞에서 공개적인 무대위에서 난리를 퍼게 만들었다. 이것이 게오르크 1세가 사망하기 직전이었고, 그의 아들 게오르크 2세가 영국의 왕이 되었다. 이 두 명의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여가수들은 스캔들이 있는 후에 다시 한번 함께 무대에 나섰지만, 1728년 6월 1일 마지막 공연이 이루어진다. 왕립음악원의 종던 세월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아마도 이탈리아식의 오페라 세리아를 영국에 귀화시키는 일은 그리 성공적이 못하였던 것이 명백하다. 「거지오페라」가 1월 29일 처음으로 공연된 것이 바로 이런 일을 시사한다 하겠다.

헨델은 그러나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오페라운영자인 하이데거와 함께 개인적인 회사를 차린다. 두 사람은 새로운 악단을 구성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간다. 헨델이 더 많은 성과를 올린다. 오페라가 그 땅에서 이룩한 발전에 대한 정보를 제일 먼저 얻어내려 했던 그의 노력이 엿보이는 일이다. 그는 곤란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오페라가 장르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베토벤의 「영웅교향곡」이 그의 자리를 흔들기 전까지는 이것이 사실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륙에서 유효하던 장르의 상하구조가 영국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오페라라는 단어는 헨델에게 있어서 이탈리아의 오페라 세리어나 이탈리아의 남녀 성악가들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에게 영국식 오페라는 상상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거지오페라」가 이 자리를 차지하였을

때도 그러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탈리아식의 오페라 세리아로 관철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집착하였던 것이다.

싸움은 힘든 일이었다. 왜냐하면 음악생활은 경제적 관점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오페라를 상연한다는 것은 공공의 일였고 그래서 정치적인 행위였다. 첫 번째 시기에는 이런 경쟁이 음악원 안에서, 조직 안에서 이루어졌다. 지금은 이것이 밖에서 이루어진다. 황태자가 관여하는 두 번째 오페라 운영 팀이 설립되고 그에게서 악단을 빼어간다. 이러한 경쟁상태는 두 운영자의 파산과 헨델의 뇌졸중으로 끝을 본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다가 1741년에 가서야 이탈리아의 오페라 세리아에 이별을 고한다. 그가 이렇게 영국에서 조차 음악적인 독점권을 따낼 수 없다는 것은 그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인식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시기의 운곡이다. 하지만 옆에는 다른 평행선이 있었다. 헨델은 1732년부터 여러 가지 우연에 힘입어 새로운 장르를 접하고 있었다. 이 장르는 영어로 이루어졌고 완전히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구약성경을 주제로 하였으며, 그것은 레시타티브와 아리아, 기악곡 뿐 아니라 전통적인 앤섬 합창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영국의 성악가들이 연주할 수 있고 연가나 장면이 없어 돈도 들지 않았다. 헨델은 오라토리오에 몰두하였고 또한 이것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는 오페라로부터의 고별을 이 장르에 몰두함으로 상쇄하였다. 1741년 8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그는 「메시아」와 「삼손」을 차례로 작곡하였다. 그는 더블린으로 가고, 그곳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런던에서 작업을 한다.

오라토리오에 대한 헨델의 결정은 그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아직은 이 장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음악적인 “무”를 위해 결정한 셈이다. 바라던 독점권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음악적은 “무”는 생각해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헨델은 자신만의 장르를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만의 물건을 개발하고 만들어냄으로써 경쟁자를 물리 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음악장르를 창조한다는 것은 엄청난 양의 구상을 요구하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이러한 것이 두 번째 시기에서, 시작되는 장르와 끝나가는 장르가 동시에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오라토리오가 여러 모습을 띄는 결과를 가져온다. 헨델이 이 장르를 창조하면서 그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하였던 것이다. 그의 마지막 오라토리오 「제프타」(Jephtha)로 그는 이 장르를 진정으로 창조한 것이다.

전통적인 장르의 상하구조에서의 풀려남, 즉 이탈리아 오페라 세리아로부터의 해어남이 그에게 그토록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이 장르의 전통에 매여 있던 것에서 자유스러워지고 자기 스스로 새로운 음악세계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

이 오라토리오로의 결정을 유도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는 독점권을 가졌고 시장의 규칙을 좌지우지 하게 되었다. 이 독점권이 목적자체가 아니라 예술적인 자기실현의 전제조건이었다. 매 오라토리오의 양식을 장르의 전통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그때그때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중들은 항상 그렇듯이 완강했다. 1745년 7월 왕위를 노리던 찰스 에드워드 스튜어트의 상륙과 1746년 4월에 쿨로텐에서의 전쟁이 그에게 4개의 승전오라토리오를 작곡할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면 오라토리오에 대한 것은 어쩌면 실패로 돌아갔었을 수도 있다. 유다스 마카베우스(Judas Maccabaeus)를 오목거울로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다. 성경의 재료를 우화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고백적인 종교가 주된 내용이 아니라, 애국적이고 사회적인 동 의가, 즉 오늘날 시민종교(Civil religion)라고 불리는 것이 주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헨델의 몇몇 특출한 작품들이 매번 다시 연주되어 예식에서 알려진 반복적인 의식에 따른다는 사실도 같은 연계성에서 이해 될 수 있는 것이다. 시민종교적인 동의에 대한 호소가,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헨델 오라토리오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헨델은 영국에서 오래 살았고 시민권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가 그에게 자신의 예술적인 가능성을 펼치게 하였고, 그가 자신의 음악을 그 나라에 주었기 때문에 “영국작곡가”가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게 해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독점권에는 경제적인 권력도 속한다. 독점권에는 돈이 따른다. 여기에서 복잡한 당시의 화폐, 동전단위나 봉급과 가격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영국의 파운드를 당시 작센지방과 브란덴부르크 지방의 화폐였던 Reichstaler Courant 5 2/3으로 계산할 좋은 이유가 있고, 이 Reichstaler Courant를 72유로, 영국의 파운드를 408유로로 계산한다는 조건하에, 그리고 각 시마다 그 크기에 따라 구매력이 틀릴 것이라는 것을 배제한다면, 헨델의 오페라의 입장료는 간막이 좌석이 163, 일층 앞좌석이 102, 첫 번째 갤러리가 51, 위쪽 갤러리가 31, 무대의 간막이 좌석이 214유로, 제일 싼 좌석의 7배(!)에 달했다. 왕립음악원에서 보르도니(Bordoni), 그리고 쿠초니(Cuzzoni), 세네시노(Senesino)의 연봉이 800,000유로였다. 사실 그들은 100만 유로를 원했었다.

헨델은 1710년 하노버의 지휘자로 독일에서 보통 수준인 72,000유로를 받았다. 영국 국왕의 펜션이 1714년 81,600유로였으나, 1723년 배로 뛰게 된다. 공주가 입주하였을 때 또 한번 같은 정도로 뛰게 되었다. 왕립음악원에서의 그의 연봉은 최상으로 325,000유로 정도로 여겨졌다. 1733년 여름에 옥스포드에서 연주하였을 때 그는 800,000유로 이상을 가져온 것으로 되어있지만, 이것이 입장수인입지 아니면 순수수입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가 예금을 이동할 때는 보통

6짜리 단위 수의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오페라운영에 대한 상당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시기에 있어서의 그의 예치금은 700유로에 달했다고 한다. 유서장에 의하면 그는 최소한 6,2백만 유로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그의 조카 요한나 프리데리카 플뢰르케(처녀명 미카엘렌)에게(그녀의 남편은 법학대학의 관할 주교이면서 할레대학교의 책임자였음) 적어도 2,7백만 유로 이상은 지불되었다. 이 계산에 따르면, 800,000유로 이상이 유서집행을 위해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7/1 이상 더 있었을 수도 있고, 약간은 다르게 배분되었을 수도 있다. 헨델은 유럽역사상 성공적이며 자유스러운 첫 번째 예술가였다. 요한 마테존이 1740년에 남겼듯이 당시에 이미 그렇게 보였다. “그는 내가 아는 한 황태자의 명령 외에는 궁정 안에서 어떠한 관직이나 일을 맡지 않았다. 그는 적지 않은 오페라와 연주회, 황실과 비슷한 음악들로 나라(경제)를 이끌었다.”

이런 것은 바흐가 속하여 일하였던 경제적인 상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드레스덴이 폴란드 왕의 거처였으며 라이프찌히가 북쪽 항구인 암스테르담과 함부르크 사이에서와 동유럽에서 중심적인 상업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이 두 도시는 각각 고유의 국제성을 갖고 있었다. 드레스덴은 자신의 외교적인 자리를 공관의 그물망 속에서, 라이프찌히는 자신의 경제적인 자리를 박람회와 시장의 그물망 속에 형성하고 있었다. 드레스덴과 라이프찌히는 독일 제국 영역 안에 있는 도시들이었다. 즉 지도적인 영역속의 지도적인 도시였다. 런던은 거기에 비하면 세계제국의 중심이었다. 그 차이는 인구수에서 드러난다. 1750년에 런던에는 676,000명의 인구가 있었고, 드레스덴에는 그 것의 1/11, 즉 60,000명이 있었으며, 라이프찌히에는 그것의 반, 즉 30,000명이 살았다. 바흐는 런던에 살 수 없었고 살려고도 하지 않았듯이, 헨델도 라이프찌히에서 그러했다. 바흐의 예술성은 시골스러운 독일 제국의 도시에서 실현될 수 있었고, 헨델은 다민족주의 국가에서 중심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바흐는 1723년 이래 라이프찌히의 직책에서 매년 평균 잡아 50,400유로를 받았다. 그의 유물은 대략 80,832유로 정도로 판정되었다. 그 중에서 집행비를 제외하면 약 70,000유로가 남았다. 아들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가 이러한 것을 한마디로 표현했다. “그는 세계를 주름잡을 필요도 없었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에 빛나는 행운도 없었다. 그는 매니아들과 애호가로부터 충분한 예우를 받았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다르고 경제적인 관계가 차이가 나듯이 예술적인 목표도 그러했다. 바흐는 살아있는 동안 두 가지 일에 유능하였다. 그 하나는 건반 악기의 연주이고 다른 하나는 다성음악 작곡이었다. 그에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었다. 이 두 가지는 푸가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건반작품, 특히 첫 두개의 「평균율곡집」과 「푸가의 예술」이 자기 작품세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가 오르가니스트로서 또한 지휘자로서 대표적인 작품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의 이러한 음악적인 이력에서 그가 프리드리히 2세를 포츠담에서 만난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일이다. 독일 개신교의 대표적인 칸토르(바흐를 칭하는 말: 역자주)는 헨델의 종교적인 오라토리오로의 귀환과 마찬가지로 음악 활동사의 창조물에 불과하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관계 속에서 바흐의 라이프찌히 시기의 단락이 헨델의 그것과 같은 해라는 것이다. 1729년 그는 콜레기움 무지쿰의 지휘를 넘겨받아 시의 연주회에 정기적으로 같이하게 된다. 40년대에 이르러 작센지방의 도시와 유럽의 국가사이에는 변화가 들이 닥친다. 정신적이고 인간 본성사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바흐는 지금까지 확실해 보이던 비호세력을 점점 잃어간다. 이것은 1741/42년 이후에 그에게 불안한 것으로 작용하여 어떠한 확실한 방향을 잡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작곡적인 면에서는 겹치면서도 갈래로 나누어지는, 옛것을 붙잡으면서도 새로운 것을 취하려는 방향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그의 반응이 그를 보존하려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즉 처음과 나중에 동시에 나타나게 한다. 서로 이토록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았던 두 음악가가 인생의 단계에서 평행선을 만든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 이유에 대하여 연구한다는 것은 역사인류학의 과제일 것이다.

두 사람의 인생은 이제 끝을 향한다. 바흐는 1750년 초에 두 번에 걸친 눈 수술을 받고 그 부작용으로 4개월 후, 7월 28일,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헨델의 첫 번째 눈 수술은 1752년에 있었다. 두 번째는 아마도 1758년 여름에, 그것도 바흐를 수술했던 바로 그 영국의사에게 수술을 받는다. 그에게도 수술은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특별한 부작용도 없었다. 그는 1759년 4월 14일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바흐보다 9년을 더 살은 셈이다. 그들의 작품들은 서로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된다. 헨델 것은 폐쇄된 채로, 바흐의 것은 흩어지게 된다.

현명한 판단

헨델과 바흐는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런 실제 기회는 바흐가 주창한다. 1719년 바흐는 쾨텐에서 할레에 있는 헨델을 만나려고 시도했지만 그는 벌써 드레스덴으로 가고 난 후였다. 1729년 바흐는 자신에게도 맞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 빌헬름 프리데만으로 하여금 헨델을 라이프찌히로 초대하도록 한다. 헨델은 자신의 늙은 어머니와의 시간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전혀 도움

이 안 된다고 믿은 사회적인 임무에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헨델이 예술적으로나 경영면에서 해내는 일의 양을 볼 때 시간을 아껴 쓰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헨델이 바흐와의 만남을 꺼려한 것은 혹 사해동포주의와의 경험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만남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오르간에서의 경연으로 이어질 것인데, 비교될 수 없는 실력을 생각하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 하나 생각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경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결과는 요한 아돌프 샤이베에 의해 전해지고 있다.

“저는 정말 이성적이며 음악에 대한 진정한 전문가인 두 대가의 연주를 듣고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결론을 지으려 합니다. 헨델씨는 매우 감상적이고 편안하게 연주하였지만 바흐는 더욱 예술적으로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연주하였습니다 …. 그들은 상대방의 음악을 들으면서 마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음악의 대가를 듣듯이 하였습니다.”

이 불가능한 직접적인 비교를 전제로 한 현명한 판단은 유지할만 하다. 우리는 두 비슷한 나이의 음악가가 서로 전혀 다른 재능을 펼쳐갔다는 사실에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두 사람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해야 한다. 우리는 비논리적이라고 굳이 우리의 양심을 속일 필요 없이, 이 두 사람을 각각 당시의 가장 위대한 음악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Bibliographische Notiz. Fuer Bach vgl. Ulrich Siegele, Bachs politisches Profil oder Wo bleibt die Musik?, in: Bach-Handbuch, hrsg. von Konrad Kuester, Kassel und Stuttgart 1999, S. 5-30, ferner derselbe, Wandlungen der Politik -- Wandlungen Bachs, in: Bach in Leipzig -- Bach und Leipzig, Konferenzbericht Leipzig 2000, hrsg. von Ulrich Leisinger, Hildesheim 2002 (Leipziger Beitrage zur Bach-Forschung 5), S. 465-477, fuer Haendel vor allem Haendel-Handbuch, Bd. 4: Dokumente zu Leben und Schaffen, Leipzig 1985. Die Zitate von Mattheson in: Haendel-Handbuch 4, 1740 (I), von Carl Philipp Emanuel Bach in: Bach-Dokumente III, Nr. 803, von Scheibe in: Haendel-Handbuch 4, 1745 (V), und Bach-Dokumente II, Nr. 417 (S. 320).

Abstract:

Bach und Haendel: Zwei Lebensläufe

Ulrich Siegele

Die Lebensläufe von Händel und Bach haben Gemeinsamkeiten nur darin, daß beide 1685 geboren sind und Musik komponiert und aufgeführt haben. Händel ist aber geboren und aufgewachsen in Halle, die damals im Umbruch stand, und seine musikalische Neigung und Begabung waren in seiner Familie neu. Dagegen wurde Bach als Glied einer weitverzweigten Musikerfamilie in Eisenach, die Stadt, die von keinem Umbruch beunruhigt war, geboren. Darüber hinaus wendete sich Händel der Oper, die die repräsentative musikalische Gattung Europas war, und hat seine Opernkarriere in Hamburg angefangen und in Italien erfolgreich weitergeführt. Er hat dann schließlich seinen Wirkungsort in London gefunden. Bach aber war geraume Zeit als Organist, Konzertmeister und Kapellmeister in unterschiedlichen Städten Deutschlands tätig, bis er in Leipzig den endgültigen Beruf als Kantor gefunden hat. Er hat dabei vielfältige Werke geschaffen.

Händel sah sein Lebensziel darin, ein musikalisches Monopol zu gewinnen. Darum wandte er sich nach London, dem Zentrum eines Weltreiches. Doch war Leipzig, wo Bach 27 Jahre seines Lebens verbracht hat, eine Stadt eines Territoriums des Deutschen Reichs. Wir sollten bewundern, daß es zwei gleichaltrigen Musikern gelungen ist, sich Verhältnisse zu schaffen, in denen sie ihre so unterschiedlichen Anlagen entfalten konnten.

국문초록:

바흐와 헨델: 두 가지 전기

울리히 지겔레

장 우 형 譯

바흐와 헨델의 삶은 그들이 같은 해에 태어났고, 작곡가이자 연주자로 활동했다는 것 이외의 공통점을 갖지 않는다. 헨델은 당시 격심한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독일 할레 시(市)의 비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다소 “생소한” 음악가의 길을 걷게 된 반면, 바흐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던 도시인 아이제나흐의 전통적인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그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음악가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 두 작곡가가 자신들의 활동무대를 찾게 되는 과정에서도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헨델은 당시의 대표적인 음악장르이자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오페라를 선택하고 함부르크에서 오페라작곡가로 활동하다가 이탈리아로 이주해 이탈리아의 오페라 양식을 습득했고, 결국 런던에서 자신의 활동 장소를 발견했다. 반면, 바흐는 여러 도시에서 직장을 바꾸어가면서 오르가니스트, (궁정) 카펠마이스터로 일하며 오페라를 제외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썼고, 라이프치히의 교회음악가로 삶을 마감했다.

헨델의 삶의 목표는 음악적 독점권을 쟁취하는데 있었고, 그러기에 그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도시인 런던을 선택했다. 바흐는 국제성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라이프치히에서 세계적인 명성이나 “빛나는 행운” 없이 작품 창작에 충실했다. 같은 나이의 이 두 음악가는 서로 전혀 다른 재능을 펼쳐나갔으며, 이들은 분명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다.